

아시아 공동체론을 수강하고 난 후

201521552 국어국문학과 맹예현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국제통상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그 양상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속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업을 통해 매주 그와 관련된 여러 저명한 연구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학부생에게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아시아공동체론을 통해 정말 다양하고 가끔은 생소하기까지 한 주제와 분야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절대 한 수업 내에서 들을 수 없는 범위의 살아있는 현장의 지식들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려면 가장 먼저 ‘아시아는 무엇이며, 그럼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왕희 교수님의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그 국제정치적 함의’를 주제로 한 강의를 인상 깊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나는 아시아가 그저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적 개념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아시아라는 개념은 또는 그 명칭 자체는 지역적인 의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마저도 지금의 ‘아시아’라고 불리고 있는 나라들이 주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서양 열강들이 설정해 놓은 지리적, 문명적 개념으로부터 묶여서 열등하고 피지배적인 국가들의 집단으로서의 아시아가 이제는 점차 세계의 중심에 서고 있다. 그만큼 주체적 공동체 개념을 아시아 각국 스스로가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아시아가 다른 유럽권 나라에 대응할 힘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하나의 목표 의식 아래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일경제협력과 아시아공동체’라는 국제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수업의 큰 장점이었다. 과거(또는 현재의) 일본의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의 모습을 현재 대한민국이 답습하고 있다는 상황 가정 하에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다. 나카야마 미츠테루 재무성 주계관은 ASEAN+3과 CMIM 등 통화스와프의 참여가 아시아 금융 협력과 안전망의 핵심이며 이 속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입지가 중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013년의 사례처럼 양국이 정치적 문제로 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즉 정치적 문제가 금융 협력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재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는 여기서 또 하나 배운 점이 있었다. 나는 이제껏 역내 금융 공동체 내부에서는 금융 협력이 단순히 이성적 계산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나카야마 주계관과 여러 실무진들이 양국 간

의 정경분리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실제로 정치적 문제와 그 해결이 경제적 협력에까지도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단순히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나라와의 교섭에 있어서도 정치적 문제의 해결과 같은 나라 간의 ‘감정 풀기’가 선두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높은 수준의 상호 교류에서도 개인과 한 개인의 연결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상호 신뢰도와 친밀감이 기반으로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앞서 말했듯 아시아공동체론은 무엇보다 윤강의 수업 형식을 통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여러 저명한 분들과 그들이 일생 동안 연구해 온 것들을 접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수업이었다. 이렇듯 완성도 있는 수업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 교수님들을 포함해 강의를 진행해주셨던 모든 분들과 원아시아재단에 감사하다. 국제교류와 그 밖의 아시아와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에 열린 마음을 갖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다.